

다발성 선종, 5) 암종등이 있으나 예중 대부분이 선종에 의해 과다하게 분비된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발생된 대사 이상에 의한 복합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대개 과칼슘혈증의 결과로 주로 신장파 골격에 뚜렷한 장애가 발생한 뒤에야 진단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 칼슘 측정이 보편화되고 진단방법이 발달됨에 따라 무증상성 환자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다. 진단 방법으로는 비관혈적 방법으로는 경부 초음파, 식도조영술, 경부 단층촬영,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부갑상선 조영술 및 자기 공명법이 있고 관혈적 방법으로는 동맥 조영촬영, 선택적 정맥혈 채취 및 부갑상선 호르몬 분석이 있다.

본원 입원환자중 우연히 발견된 고칼슘증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부갑상선 조영술(Subtraction scanning)을 하여 확진후 병변부위 절제술을 시행하여 결과가 좋았던 2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3 —

**Hyperthermia in Head and Neck Cancer :
Korea Cancer Centr Hospital(1986-1988)**

*Department of Therapeutic Radiology,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KAERI*

KH Koh, YH Park, CK Cho, SY Yoo, WY Park

35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malignant tumors in head and neck with hyperthermia induced by 915 MHz microwave or ultrasound, and radiotherapy. Most of patients had failed with previous conventional therapeutic trial. Hyperthermia was done immediately after radiotherapy, twice a week, 43°C for 45-60 minutes. Radiotherapy was done 5 fractions per week, fraction size was 2Gy, and total tumor dose was 30-60Gy. Total response rate(PR+CR) was 80% Tumor depth, minimum temperature, numbers of heat fraction, and total tumor dose of radiotherap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umor response. Hyperthermia with 915 MHz microwave and ultrasound can be used efficiently to control locally advanced malignant

disease whether previously received near tolerance dose or not.

— 24 —

갑상선 여포암의 세포분화도와 예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외과학교실

노 동 영·오 승 근

갑상선 여포암의 저분화형(poorly differentiated)은 보통의 여포암에 비해 예후가 매우 나쁜 암으로 이에 대한 보고는 국내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국외에서도 부분적으로 몇몇 보고가 있을 따름이다. 이에 저자들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간 갑상선 여포암으로 입원한 30예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분화형을 가진 갑상선 여포암의 병리학적 고찰과 함께 보통의 여포암과 생물학적 특성 및 예후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동기간 동안 저분화형은 5예로 전체 여포암의 16.7%를 차지하며 남녀의 비는 2:3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5.2세로 보통의 여포암의 호발 연령 40.6세보다는 많았다($p<0.05$). 종양의 크기도 평균 6.6cm로 보통의 여포암의 4.9cm보다 컸으며($p>0.05$) 증상의 발현으로부터 외과적 치료까지의 기간도 보통의 여포암이 평균 7.3년인데 반하여 18.6년으로 매우 긴 편이었다($p<0.05$). 병리학적으로 저분화 여포암의 진단은 용이하지 않았으며 조직 소견상 특징적인 nonglandular 성분의 solid, trabecular, 혹은 scirrhous 양상을 관찰하였고, Hurthle cell tumor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는 특징적인 호산성 세포질을 관찰함으로 분별하였으며, thyroglobulin 특수 염색을 통해 medullary carcinoma와의 감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전이의 형태도 저분화형의 2예에서 림프절, 골, 뇌에 전이가 있었으며 림프 전이에서는 lymphoid follicle의 잔여부위가 완전 소실되는 조직학적 양상을 보였다.

예후는 평균 3.0년의 추적 기간중 보통의 여포암이 단 한명의 사망도 없이 단지 3예의 재발을 보인데 반하여 저분화형에서는 총 5예에서 2예의 재발과 1예의 사망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갑상선 여포암의 분화도가 항상 일정한

상태로 지속되는것 같지 않으며, 저분화된 여포암은 보통의 여포암과 전혀 다른 생물학적 특성 및 예후를 보임으로 치료 방침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 25 —

Human Papillomavirus 16/18, 31/33/35 in Verrucous Carcinoma of the Larynx

Department of Path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ng-Sook Lee, MD, June-Sik Park, MD* and Chai-Hong Chung, MD

Verrucous carcinoma of the larynx is a distinct and uncommon variant of well-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 The authors hybridized in situ a case of laryngeal verrucous carcinoma with DNA probes to human papillomavirus(HPV) 6, 11, 16, 18, 31, 33, and 33. The DNAs from the verrucous carcinoma of larynx hybridized with mixed probes HPV-16/18 and 31/33/35. In addition, there was an evidence of HPV infection based on hybridization with mixed probe HPV 6/11 in the adjacent papilloma tissue. By in situ DNA hybridization techniques, we clearly demonstrated human papillomavirus(HPV-16/18, and 31/33/35-related) sequences in this neoplasm. These findings suggest the role of HPV 6/11 in the development of laryngeal papilloma and HPV 16/18 and 31/33/35 probably on the progression to and verrucous carcinoma.

— 26 —

두경부암의 면역요법
— Cytotoxic lymphocyte의
세포독성에 관하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최 은 창 · 홍 원 표

암은 여러가지의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재발 혹은 암의 잔존상태가 왕왕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작은 잔존암세포 혹은 작은 전이암세포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암의 치료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도하다. 이에 대한 치료로는 화학요법이 주가 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면역요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면역학적인 치료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한 방법이 Adoptive immunotherapy로서 자가 암에 대하여 특이한 Killer T 세포를 시험관 내에서 유도, 증식시켜 다시 환자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두경부 암에 관하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저자들은 두경부암 환자에 있어서 면역요법을 위한 단계로서 상악동암 환자의 자가암세포 및 동종암세포를 이용하여 임파구를 활성화 시킨 다음 그 활성화된 임파구의 증식 및 여러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 과 :

1) Cytotoxic lymphocyte를 암임파구혼합배양하여 유도한 뒤 interleukin-2에 의하여 증식시킨 결과 12일 후 약 30배에 달하였다.

2) 혼합배양에 의하여 유도된 cytotoxic lymphocyte는 말초임파구보다 자가암세포에 더 큰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3) Cytotoxic lymphocyte는 말초임파구보다 동종암세포에 대하여 더 큰 세포독성을 보였다.

4) Cytotoxic lymphocyte를 다시 환자에 투여하는 이른바 Adoptive immunotherapy는 두경부암의 미세 전이 혹은 미세잔존암세포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리라 기대된다.

— 27 —

Kimura씨 병과 유상피 혈관종의 임상 및 조직학적 재검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안 희 정 · 이 광 길